

전기차 판매 급증…광주생산 기아 EV5 미래 전략 차종 부상

지난해 22만대 전년비 50.1% 늘어…올 들어서도 폭발적 증가
가격 경쟁력 앞세운 중국차 112% 대약진 속 수입차 판매 78%
국산 전기차 생태계 보호 ‘국내 생산 촉진 세제’ 등 지원책 필요

지난해 급반등한 국내 전기차 시장이 올 초에도 폭발적인 성장세를 이어가면서 기아 오토랜드 광주에서 생산되는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EV5’가 광주공장의 미래 전략 차종으로 떠오르고 있다.

9일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전기차 신규 등록 대수는 22만 177대로 전년 대비 50.1% 급증했다. 전기차 침투율(신차 구매 중 전기차 비중)은 13.1%를 기록하며 처음으로 두 자릿수에 올라섰다. 정부 보조금 조기 집행과 제조사 신차 경쟁, 가격 인하 전략이 시장 확대를 이끌었다는 분석이다.

상승세는 올해도 이어지고 있다. 카이즈유 데이터 연구소 집계 결과 지난달 전기차 신차 등록은

5733대로 전년 동월 대비 141.1% 급증했다. 같은 기간 휴대폰·경유 차량은 각각 5.2%, 47.7% 감소했다. 전체 자동차 시장이 정체된 가운데 전기차만 세 자릿수 성장률을 기록하며 시장의 중심축으로 자리 잡았다는 평가다.

이같은 흐름 속에 기아 EV5의 의미가 커지고 있다. EV5는 EV4·EV9 등과 함께 기아가 ‘전기 대중화’를 겨냥해 내놓은 핵심 차종으로 광주공장에서 생산되는 대표 차종이다. 중형 SUV급 전기차 수요가 확대된다면 EV5가 스포티지를 이어 광주공장의 주력 생산 차량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경쟁 환경은 치열한 상황이다. 지난해 수입 전기차 판매는 78.2% 급증하며 국산 차 증가율은



국내 전기차 시장이 지난해에 이어 지난달 성장세를 이어가면서 기아 오토랜드 광주에서 생산하는 EV5가 지역 경제의 미래 전략 차종으로 떠오르고 있다.

(34.2%)을 크게 웃돌았고, 중국산 전기차는 테슬라 모델 Y와 BYD 등 신규 브랜드 인기로 112.4% 폭증하며 시장 점유율 33.9%까지 치고 올라왔다. 국산 전기차 점유율은 57.2%에 머물렀다.

전기차 전환 속도가 빨라질수록 생산 기지 확보와 안정적인 물량 배정으로 수입 전기차와의 경쟁에서 선두에 서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EV5 등 국내 생산 전기 차종의 성공 여부가 주목되는 이유다.

KAMA는 이번 시장 반등이 인기 모델 집중과 보조금 등 정책 효과가 결합된 결과라고 분석하면서도 소형 전기차와 픽업트럭, 목적기반차량(PBV) 등 다양한 차종의 수요가 확인된 점은 향후 시장 다변화의 긍정 신호라고 진단했다.

업계는 자율주행 기술과 가격 경쟁력이 향후 전기차 시장의 핵심 변수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KAMA 관계자는 “중국산 전기차의 급격한 유입은 가격 하락을 통한 보급 확대와 소비자 선택권 확대라는 긍정적 측면이 있으나 국내 제조 기반의 위축과 공급망 관련 경쟁 압력을 심화시키고 있다”며 “국산 전기차의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고 제조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한 ‘국내 생산 촉진 세제’ 등 지원책 도입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지역 자동차 업계 관계자는 “전기차 시장이 다시 커지기 시작하면 생산 거점이 어디에 있느냐가 산업 판도를 좌우한다”며 “전기차 시장 확대에 따라 EV5가 함께 성장한다면 지역 자동차 산업의 체질을 ‘전기차 시대’에 맞춰 바꾸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국민이 뽑은 가장 안전한 차량은…기아 PV5·벤츠 GLC300 1위

교통안전공단 안전연구원

전기차 5종·내연차 5종 투표

한국교통안전공단(TS) 자동차안전연구원은 9일 ‘26년 자동차안전도평가(KNCAP) 시험차 선정을 위한 대국민 투표 결과’를 발표했다.

자동차안전도평가는 제작 자동차의 안전도 향상을 유도하기 위해 충돌 안전성, 외부 통행자 안전성, 사고 예방 안전성, 전기차 안전성 분야로 구성된 항목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는 제도다.

TS는 올해 자동차안전도평가 대상 차종 선정

을 위해 전기차와 내연기관차(하이브리드차 포함) 2개 평가군별 5개 차종을 제시하고 지난달 25일부터 31일까지 대국민 투표를 진행했다.

투표 대상은 기아 PV5·현대 ST1·볼보 EX30·BYD 씨라이언·BYD 돌핀 등 전기차 5종과 KGM 무쏘 스포츠·미니 컨트리맨·벤츠 GLC 300·토요타 NX350h·토요타 RAV4 등 내연기

관차 5종이다. 투표 결과 전년(7576명) 대비 15.3% 증가한 8944명이 참여해 전기차에서 기아 PV5(27.1%), 내연기관차에서 벤츠 GLC300(26.6%)이 1위를 기록했다. 두 차량은 올해 자동차안전도평가 대상 차종으로 포함돼 종합 안

전성 평가 후 그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전기차군에서는 PV5를 이어 볼보 EX30 25.5%, 현대 ST1 21.8%, BYD 씨라이언 15.6%, BYD 돌핀 10.0% 순으로 득표했고, 내연기관차군에서는 벤츠 GLC300 다음 KGM 무쏘 스포츠 23.3%, 토요타 RAV4 17.7%, 토요타 NX 350h 16.4%, 미니 컨트리맨 16.0% 순이었다.

정용식 TS 이사장은 “국민이 선택한 차량을 평가하고 결과를 공개하는 등 자동차안전도평가 관련 국민의 참여와 관심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국민 눈높이에 맞는 자동차 안전 사업을 추진하고 신뢰를 높여가겠다”고 말했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연 100여건 사고…정부 ‘페달 오조작 방지’ 기술 개발 추진

국토부 R&D 참여 기관 모집

AI 기반 사고 방지 시제품 제작

정부가 기속 페달을 브레이크로 착각해 발생하는 ‘페달 오조작 사고’를 줄이기 위한 기술 개발에 나선다.

고령 운전자 비중이 높은 관련 사고가 매년 100 건을 넘어서며 대형 인명 피해로 이어지자 국가 연구개발(R&D)을 통해 예방 장치와 평가 체계를 함께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국토교통과 학기술진흥원(KAIA)을 통해 ‘운전자 페달 오조작 방지 및 평가 기술 개발 사업’을 공고하고 참여

기관을 모집 중이다.

목표는 페달 오조작을 효과적으로 막는 장치를 개발해 관련 사고를 절반 이하로 줄일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분석 결과 급발진 의심 사고 중 페달 오조작이 원인으로 판명된 비율은 2021년 87.5%, 2023년 89.7%, 2024년 상반기 91.4% 등 90% 안팎에 이른다. 사고 운전자 중 60 대 이상 비중은 70%를 웃돌았다.

2023~2024년 페달 오조작 사고로 인한 피해는 사망 67명, 부상 992명, 경제적 손실 521억원대로 집계됐다. 진흥원은 2024년 서울시청역 역주행 사고처럼 대규모 인명 피해를 막기 위한 기술적 대응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진흥원은 페달 오조작 방지 기술 개발로 중대 교통사고 유발 요인을 제거하고 고령 운전자 등 교통약자의 안전·편의성을 높일 것”이라며 “정부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대책의 성공적 달성을 위한 기술·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국민이 안심하는 교통안전 선진 국기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 조속한 국회 통과를 위한 성명서 발표

· 일시 : 2026. 2. 9(월) 10:30

· 장소 : 자동차회관 그린저울홀(B1)

· 주최 : 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자동차업계, 대미투자특별법 이달 제정 촉구

“수출 전반 불확실성 증폭 우려”

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IA)가 현재 발의된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대미 투자특별법)의 이달 내 제정을 촉구했다. <사진>

KAIA는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 한국자동차연구원, 현대기아 협력회, 한국GM협신회, KG모빌리티협동회 등 자동차 관련 단체로 구성된 연합체다.

KAIA는 9일 성명을 내고 “최근 미국 정부가 지난해 11월 양국 간 합의한 자동차 등 주요 품목에 대한 15% 관세를 다시 25%로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불안감이 크다”며 “이는 우리 자동차산업의 투자와 수출 환경 전반에 불확실성을 증폭시키는 사안으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관세 인상 가능성에 지속되는 불확실한 상황에서는 기업의 투자 동력이 약화될 수밖에 없다”면서 “이는 산업 생태계 전반의 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KAIA는 “미래 모빌리티로의 전환이 가속화돼 대규모 투자의 시급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인 경영 환경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우리 기업들이 대외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환경 속에서 투자와 수출을 지속할 수 있도록 대미투자특별법의 이달 중 제정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대미투자특별법이 한국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은 것 등을 문제 삼아 양국 간 합의한 자동차 등 주요 품목에 대한 15% 관세를 다시 25%로 인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지금 당신이 서 있는 그곳이
지구의 중심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세상을 변화
주역을 바로 당신입니다.

학부 신학과 한국어교육학과 유아교육과 복지상담융합학부 음악학부
대학원 신학대학원 일반대학원 상담치료대학원 사회복지대학원 국제대학원 음악대학원

입학문의 >

학 부 062)605-1114 대학원 062)605-1115

사랑과 감사의 72년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26]

For the Lord
주님을 위하여
To the World
세상을 향하여

믿음이 있는 대학 · 믿음을 주는 대학
광신대학교
KWANGSHIN UNIVERSITY
61027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택지로 36